**보 도 자 료**

|  |  |
| --- | --- |
|  | |
| 수 신 | 각 언론사 |
| 참 조 | 의‧약계 기자 |
| 발 신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담당자 : 임명희, 02-523-9752) |
| 제 목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대한약사회 간 약계현안논의를 위한 회장단 모임 |
| 날 짜 | 2010. 04. 01 (총 1 쪽) |
|  |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대한약사회 간 약계현안논의를 위한 회장단 모임**

1.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4월 2일 오후 5시 대한약사회관에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와 대한약사회 간의 회장단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3. 지금 정부는 쌍벌죄 등의 리베이트 척결방안마련은 도외시한체, 타당성도 검증되지 않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제도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뚜렷한 근거와 원칙도 없이 신설된 약대는 그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는 와중에 예정에 없던 증원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약사라는 직능 고유의 전문성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한민국 약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약사회는 뚜렷한 해결방안이나 구체적 대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건약은 대한약사회 회장을 비롯한 실무진과의 만남을 통해 시급한 약계현안에 관한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약사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5.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